

기업들, 추석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LG, 1조1500억 통큰 결단

전자 6500억·화학 2200억 등 총 9개 계열사 11일 앞당겨 지급 2·3차 협력회사에도 권장키로



LG는 1차 협력회사에 대한 안내문 등을 통해 2·3차 협력회사들에게도 납품대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LG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조1500억원의 협력회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LG전자가 약 6500억원, LG화학이 2200억원 등 9개 계열사가 총 1조1500억원의 협력회사 납품대금을 최대 11일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원자재 대금 결제,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 일시적으로 자금 수요가 몰리는 중소 협력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설에도 LG는 1조24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한 바 있다.

또, 1차 협력회사들이 대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인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유도해 2·3차 협력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힘을 예견했다.

LG는 2015년부터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운용 중이며, 지난 7월까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1차 협력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44조원에 달한다. 특히 LG전자의 경우, 2·3차 협력회사에게 납품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

급하거나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1차 협력회사에게 상생펀드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LG는 추석을 맞아 사업장 인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외 이웃을 돕는 다양한 활동도 펼친다.

LG화학 대산공장은 사택 내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인근 마을 다문화 가정에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하며, LG전자 창원공장은 인근 지역 불우이웃들에게 추석 음식 재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는 9월을 전자 추석 맞이 사랑나눔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파주, 구미 사업장 인근의 결연 가정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추석명절 사랑나눔' 봉사활동에 나선다.

【서울=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CJ, 5천억 규모... 협력업체 1.4만곳 혜택

ENM 1740억·제일제당 1300억 등



상생 차원에서 납품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에 일시적으로 가중되는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CJ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약 5000억원의 협력업체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CJ의 8개 주요 계열사와 협력하는 중소 납품업체 1만4000여곳이 혜택을 받게 됐다. 계열사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기존 지급 일보다 한달 가량 선(先) 지급된다. 규모는 CJ ENM(오쇼핑부문+E&M부문) 1740억원, CJ제일제당 1300억원, CJ대한통운 860억원 등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CJ그룹 관계자는 "협력업체들과의

CJ그룹은 이외에도 동반 성장과 상생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식품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에 등극, 상생 경영의 성과를 인정 받고 있다. 식품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식품안전상생협회' 설립·운영, 중소기업간 상생 브랜드이자 상생 프로그램인 '즐거움 동행' 등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 구축과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CJ ENM 오쇼핑부문이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해온 농촌기업과의 상생 프로그램 '1촌1명품'은 누적 방송 시간 1000시간을 돌파하며 판로 확대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촌1명품'은 CJ ENM 오쇼핑부문이 국내 농촌 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해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판매해주고 홍보까지 지원하는 상생 사업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LS산전, 7일 앞당겨 20일 400억 지급

LS산전이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전 어려운 자금 사정에 고심하는 중소 협력회사 지원에 나섰다.

LS산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회사의 자금 부담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약 400억 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조기 지급되는 대금은 9월 27일 정산분으로 이를 일주일 앞당겨 추석 연휴전인 9월 2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LS산전은 원자재 대금 결제나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명절 연휴에 즈음해 대금을 미리 지급, 중소 협력회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S산전은 지난 2014년부터 추석 등 명절에 앞서 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1억 원 이하 대금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협력회사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서울시, 추석 5대 종합대책 시행

안전·교통·편의·물가·나눔 분야 메르스 확산 방지에도 총력 대응

서울시는 17~27일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교통·편의·물가·나눔 분야를 중심으로 '추석 5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석 연휴 전 추가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격리접촉자는 격리가 해제 될 때까지 자치구 감염병 조사관을 활용해 집중 관리한다. 밀접접촉자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1일 2회 상황을 점검한다.

시는 최근 금천구 가산동과 동작구 상도동 건축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건축물 관련 재난이 발생하면 형식적인 보고서

가 아닌 SNS 핫라인을 운영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 2차 피해 확대를 막는다.

버스·지하철 막차 연장운행(새벽 2시까지)은 24~25일 실시한다. 지하철은 종점과 도착, 버스는 차고지 출발기준이며, 막차 연장 버스노선은 서울역 등 5개 기차역과 강남터미널 등 4개 터미널을 경유하는 129개 노선이다.

시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치솟은 추석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 5일까지를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한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물가안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과, 배, 조기 등 9개 추석 성수품을 동기간 물량 대비 110%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독거어르신, 쪽방주민 등 소외이웃과 상생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46억원의 위문품비를 지원한다. 연휴 전후 독거어르신 안부를 확인해 고독사를 예방한다. 결식 우려 아동에게는 급식을 지원한다.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합동 차례상, 전통놀이 등 추석맞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부모 가정에게는 생필품을 전달한다.

교통정보, 전통시장, 문화행사, 병원·약국 등 서울시 추석 연휴 종합정보는 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hik1@】

푸틴 만난 롯데 황각규 러시아와 30년 경협외교

롯데, 동방경제 포럼 참석

이낙연·중 시진핑·日 아베 '한자리'



규모의 토지경작권과 영농법인을 인수해 운영해오고 있다. 2017년 산 콩과 옥수수는 전량 판매하였으며, 옥수수의 경우 국내로 7000t 역수출하기도 했다.

구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와 30년간 인연을 맺은 롯데가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 4회 '동방경제포럼'에 주요 임원을 파견하고 호텔을 행사장으로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

롯데그룹은 황각규 부회장(사진)과 이충의 롯데상사 대표이사 등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되는 제 4회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정부가 아시아 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대한민국 이낙연 국무총리 등 동북아시아 국가의 정상 및 정·재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황각규 부회장은 지난 1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업인 비즈니스 오찬에 참석했다. 오찬에는 국내외 30여개 주요기업이 참석해 러시아 투자 및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황 부회장은 "롯데를 포함한 한국기업들이 더 많은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 참석해 양국간 경제협력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다이얼로그에는 롯데상사 최원보 법인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장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롯데상사는 지난해 말 연해주 지역에서 9350만㎡

다. 롯데는 향후 농장의 경작면적을 늘리고 연관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오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향후 러시아 사업 확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타타르스탄 공화국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황 부회장은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국내외의 주요 인사들에게 롯데의 러시아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협력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소비엔트 연방 선수단을 후원한 것을 계기로 러시아와 인연을 맺기 시작해,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활발하게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2007년 롯데백화점, 2010년 롯데호텔이 차례로 러시아 모스크바에 문을 열어 업계 최초로 해외사업을 시작하였고, 롯데제과도 2010년 진출해 칼루가 주에 초코파이 공장을 건설했다. 특히 롯데호텔모스크바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최고 호텔로 자리매김했으며, 이에 힘입어 롯데호텔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마라에도 호텔을 오픈했다.

아울러 롯데는 2013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단지 내에 러시아의 문호 푸쉬킨의 동상 부지를 제공하는 등 양국의 문화 교류에도 기여해왔다.

【박인용 기자】



지난 6~7일 인천공항에서 개최된 항공사 취업박람회 현장 모습.

【정연우 기자】

항공사 취업박람회 열기 '후끈'

대한항공 600명·아시아나 290명 등 하반기 채용규모 총 1700여명 달해

하기만 하다"며 "경쟁이 치열한 만큼 최근 불거진 논란과는 상관없이 지금으로서는 하루빨리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년 고용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항공사 취업을 위한 예비승무원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인천공항에서 개최된 항공산업 취업박람회에는 첫 날에만 1000여명의 참가자가 몰려 뜨거운 취업 열기를 느끼게 했다. 일부 항공사들의 불미스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입사를 위해 승무원을 준비하는 수요는 전혀 줄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승무원 지망생 A씨는 "최근 항공업계와 관련해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항공사 취업준비생의 마음은 절박

업계에 따르면 현재 9개 국적항공사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들이 하반기 신입, 경력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이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곳은 대한항공이다. 올 하반기 600명을 채용한다. 아직 공고 전이지만 아시아나항공도 290명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비용항공사(LCC)도 다수의 인력을 채용한다. 제주항공은 올 하반기 160명을 충원할 예정인 가운데 진에어는 270여 명, 티웨이항공 140여 명, 에어부산 150여 명, 이스타항공 100여 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연우기자 yw964@】